

전도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42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여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배도 고프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러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처음 본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모두 맞게 말하자,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¹⁾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¹⁾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리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32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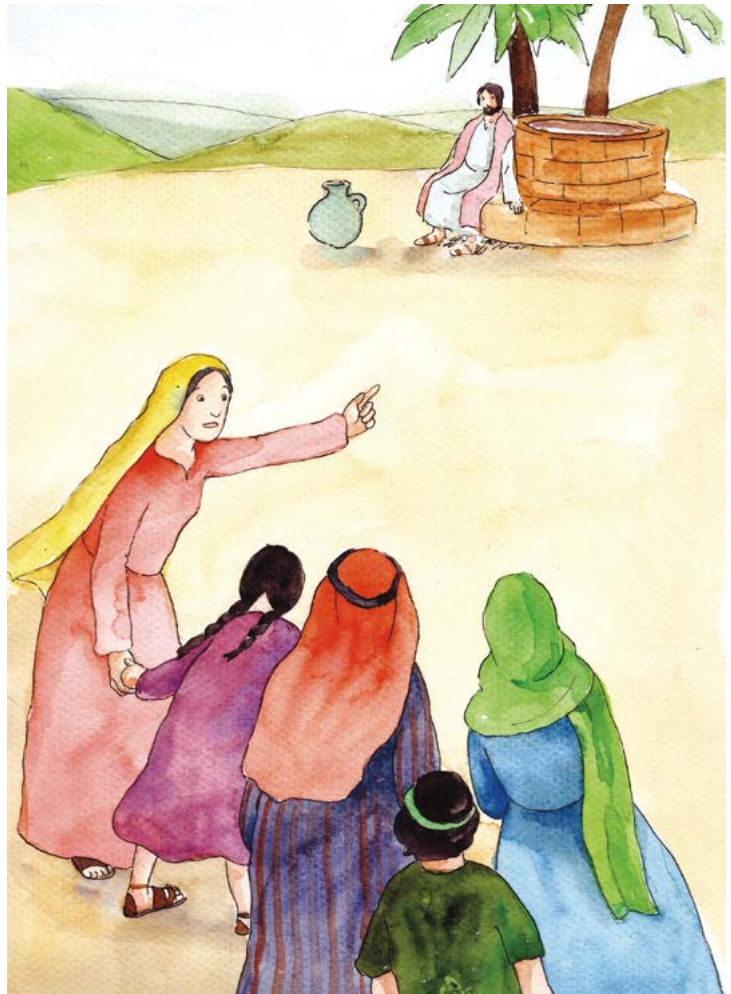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 많은 사람
에게 전도했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가져 왔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의 공부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 빈 칸에 적어 보세요.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니
(사도행전 4:20)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구원받은 사람에게 입으로 먹는 양식 이외에 영혼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다음 중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골라 보세요.



()



()



()



()

*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영혼의 양식을 먹었는지 다음 빈칸에 채워 보세요.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먹는 양식						

? 지금 나의 영혼은 양식을 먹어 건강한가요? 아니면 배가 고프나요?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예 화

* 히틀러에게도 전도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히틀러의 정권에 반대한 죄로 감옥에 갇혀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치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던 히틀러가 애 통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감옥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몹시 나쁜 사람들이라 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